

□ 홈페이지 만드는 법

이제 사이버 공간

오늘날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이버 세계가 실생활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광고, 오락, 상거래 등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러한 홈페이지를 전문가들만이 만들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 쉽다. 따라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홈페이지 제작의 길을 보다 쉽게 안내하고자 한다. (편집자)

위드로 속제를 하고 가끔 PC 통신 채팅을 즐기는 평범한 대학생 K군은 학교 전산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사이버 세계를 처음 접하고 여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왔다. 친구의 홈페이지 방문록에 글을 남겼고, 사이버 쇼핑몰에서 카메라를 구입했으며, 가상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언제까지 만들어진 홈페이지 방문만 해야 할까, 자신도 정보의 제공자가 될 수 없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던다. 그래서 그는 1주일여의 각고 끝에 자신의 소개와 사진이 담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뿌듯해 한다.

세계 5천만의 네티즌들이 자신의 홈페이지 방문록에 남긴 글을 보는 재미로 하루를 마감한다는 K군, 이제 그의 노트에서 홈페이지 제작 비법(?)을 훑쳐보고자 한다.

홈페이지 제작은 보통 집을 짓는 일에 비유되곤 한다.

우선 집을 지을 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계정이라는 업로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계정은 인터넷 전용선에 연결된 컴퓨터에 직접 서버를 설치하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초보자들에게는 장비나 기술상의 문제가 따라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면 인터넷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또는 무료 계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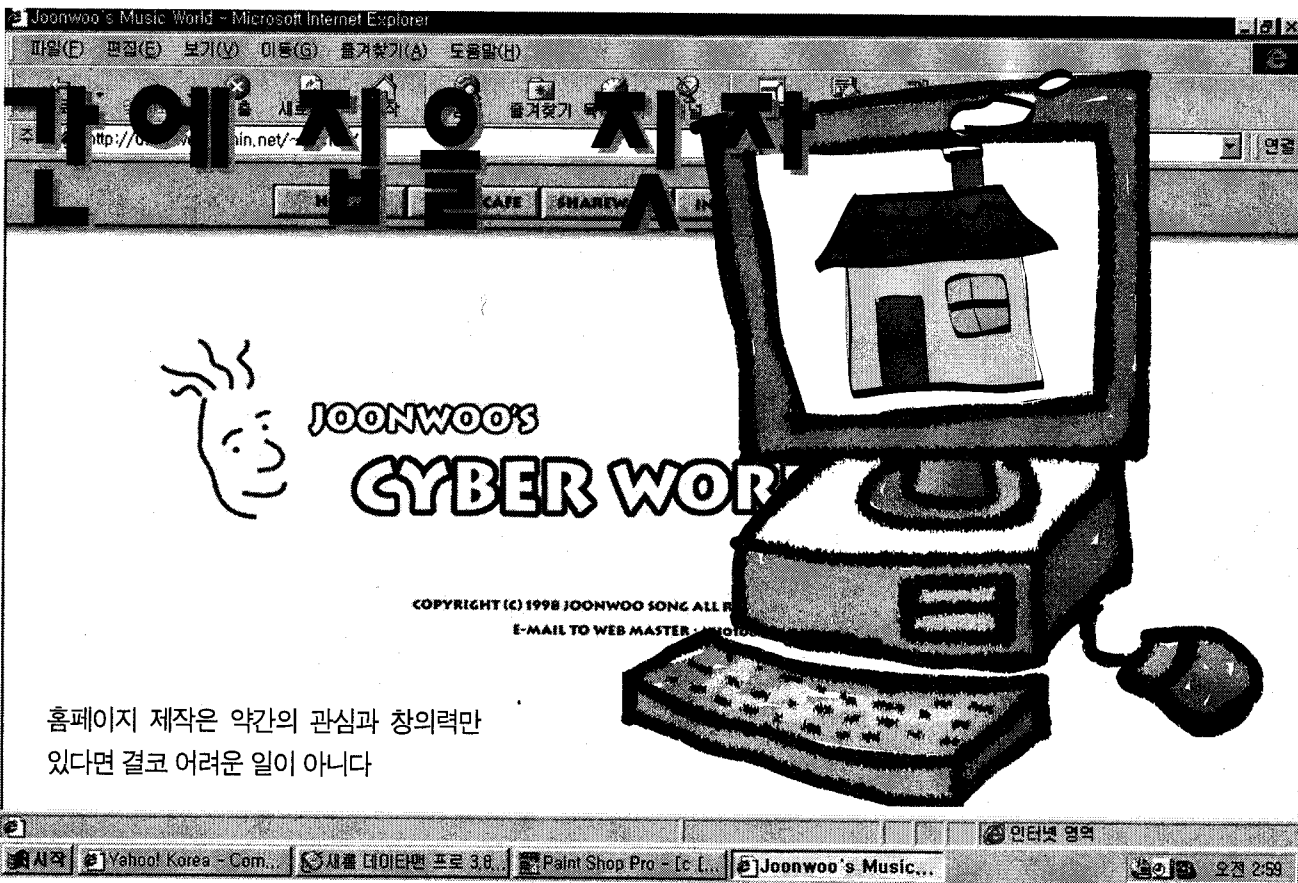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무료로 계정을 빌려 주는 곳은 네티앙(www.netian.com), 웹어드민(www.webadmin.net), AIBBS(aibbs.dzone.co.kr) 등이 있다. 계정을 확보하면 자연히 앞으로 만들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가 정해진다.

땅이 마련 되었다면 이제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 먼저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정하고 다음으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그려본다. 일단의 개인 소개 홈페이지는 메뉴란, 소개란, 취미란, 방명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원칙에 따를 필요는 없다. 자신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 독창적인 레이아웃을 그려보는게 더 좋을 것이다.

이젠 실제로 집을 지어야 할 차례다. 홈페이지는 벽돌과 시멘트가 아닌 이미지 파일과 HTML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좀 생소한 단어라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미지 파일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배포하는 공개 파일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HTML 파일 역시 쉽게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가 공개 또는 상용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HTML 파일은 홈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가장 까다로운 요소이다. HTML 파일도 태그라는 명령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모, 프론티페이지, 핫도그 등의 프로그램으로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 한글, MS워드 등의 문서 작성기로도 화면을 직접 보면서 만들 수 있으나 HTML이 어렵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

HTML 정도만 익숙해진다면 어느정도 홈페이지 제작의 길을 터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전문적인 길을 걷고 싶다면 또 다른 프로그래밍 기술을 공부해볼만 하다. 즉 JAVA, DHTML, CGI, ASP 등의 기술은 홈페이지를 보다 생동감 있고 기능적으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페인트샵이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이미지 저작도구를 사용하면 좀더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다. 그러나 좀더 전문적인 길을 걷고 싶다면 또 다른 프로그래밍 기술을 공부해볼만 하다. 즉 JAVA, DHTML, CGI, ASP 등의 기술은 홈페이지를 보다 생동감 있고 기능적으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페인트샵이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이미지 저작도구를 사용하면 좀더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는 익스플로러에만 적용되고 LAYER라는 태그는 커뮤니케이터에만 적용된다. HTML까지 마무리했다면 이미 마련한 계정에 이미지 파일과 HTML 파일을 저장시켜야 한다. 계정의 종류마다 저장시키는 방법이 다른데 보통은 FTP라는 프로그램을 쓴다.

자, 집이 완공되었다. 사람들을 불러 구경 시켜줘야 할 때다. 네티즌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르기 위해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처음으로 해야 할 홍보 활동은 심마니(simmany.chollian.net), 네이버(www.naver.com), 야후 코리아(www.yahoo.co.kr), 한글 알타비스타(www.altavista.co.kr) 등의 검색엔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여러 PC통신 게시판이나 자신의 명함에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알리는 것도 또다른 홍보 활동이다.

“홈페이지 제작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요. 약간의 관심과 창의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뛰어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라고 당당히 말하는 K군. 앞으로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더욱 가꾸어 각종 홈페이지 경진 대회에도 출품해 보겠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송준우 기자)

홈페이지 제작은 집 짓는 것에 비유된다. 우선 땅을 마련해야 하고 벽돌과 시멘트를 준비해야 하며 완성된 후에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한다

□ 인터넷 명소

홈페이지로 홈페이지를 배운다?

인터넷에는 없는게 없다는 말을 실감케 하듯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정보도 여러 홈페이지에 실려있다. 즉, 홈페이지 제작을 도와주는 홈페이지인 셈이다.

우선 소개할 곳은 '홈페이지 7일 완성' (www.cen.tech.co.kr/~juno) 이라는 홈페이지이다. 이곳은 작년 여름에 처음 문을 연후 현재까지 3만여명이 다녀간 인터넷 명소이기도 하다. '나모 웹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풍부한 자료와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잘 짜여진 구조 등이 방문자의 감탄을 자아낸다. 또한 Q&A 게시판을 설치하여 방문자의 질문을 받아 답변해 주기도 한다. 전체 설명은 총 7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부분은 하루 분량의 자료이므로 일주일이면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DREAM' (my.netian.com/~wind3) 이라는 홈페이지 역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홈페이지이다. 문을 연지 얼마 안된 홈페이지이나 그 어느곳도 흉내내기 힘든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곳은 주로 직접 HTML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비록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DHTML 이라는 최신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호기심 많은 네티즌이라면 관심을 가져 볼만도 할 것이다.

혹시 보다 고급적인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Webker' (www.shinburo.com/~webker) 라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볼만하다. 이곳은 HTML은 물론 JAVA, CGI 등의 고급 기술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정보 검색 기능을 지원해 이 홈페이지 내의 정보를 검색해 볼수도 있다. 다만 정보량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흠.

홈페이지 제작을 가르치는 홈페이지는 대부분 질적으로 뛰어난 수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굳이 홈페이지 제작을 배운다는 동기 외에 오늘날의 홈페이지 제작 수준을 가늠해 보는 데도 충분히 방문 가치가 있을 것이다. (송준우 기자)

그밖의 홈페이지 제작 관련 홈페이지들

HOME PAGE TUTORIAL : soback.kornet.net/~landfall/
HTML GUIDE : members.iworld.net/bada/guide
Learning HTML : sys.gsnu.ac.kr/~mac30/html/
HTML ONLINE : www.kol.co.kr/~ysi94/html/on.html

사이버 광장

사이버 단신

015 페이징 메일 서비스

015 서울이동통신은 전자우편(E-MAIL) 수신 즉시 이를 사용자의 무선 호출기로 연락해주는 페이징 메일 서비스를 지난달 29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울이동통신 홈페이지(www.seoultel.co.kr)에 접속하여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후 PC에 설치하면 된다.

무료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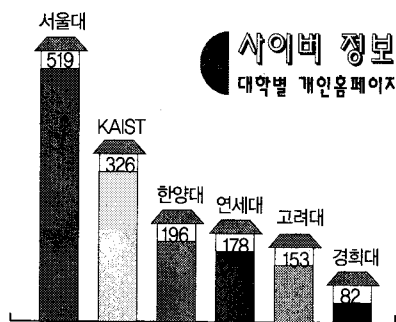
영진 IC는 지난달 26일 무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무료 홈페이지 서비스는 방문자에게 홈페이지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제작할 수 있게하는 서비스인데 예스넷(www.yesnet.net) 접속 후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무료 전자우편서비스는 예스넷의 예스월드로 들어가 예스 우체국으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용어사전

업로드(Up-Load) : 파일등의 자료를 통신을 통해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 저장시키는 것
서버(Server) :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정보 수취 컴퓨터인 클라이언트(Client)의 상대적 의미
태그(Tag) : HTML 파일을 구성하는 명령어들의 통칭
MARQUEE, LAYER : 태그의 한 종류
브라우저(Browser) :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FTP : 인터넷상에서 컴퓨터간에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 또는 이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검색엔진 : 인터넷상의 정보를 찾아 주는 홈페이지(야후, 심마니, 네이버 등)
JAVA : 홈페이지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DHTML : 홈페이지에서 글자나 이미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CGI : 홈페이지에 게시판이나 방명록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

사이버 정보 대학별 개인용홈페이지수



우리학교 학생들이 만든 홈페이지는 몇 개나 될까? 정확히 셀수는 없지만 검색엔진 심마니(simmany.chollian.net)에 등록된 수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5월 29일 현재 심마니에는 82개의 우리학교 학생들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다. 전체 대학중에서는 18위인 저조한 편이다. 1위는 519개의 서울대가, 2위는 326개의 KAIST가 차지하고 있다.

동아오츠카

유통기한 확인으로 가족건강 나라건강

스무나이의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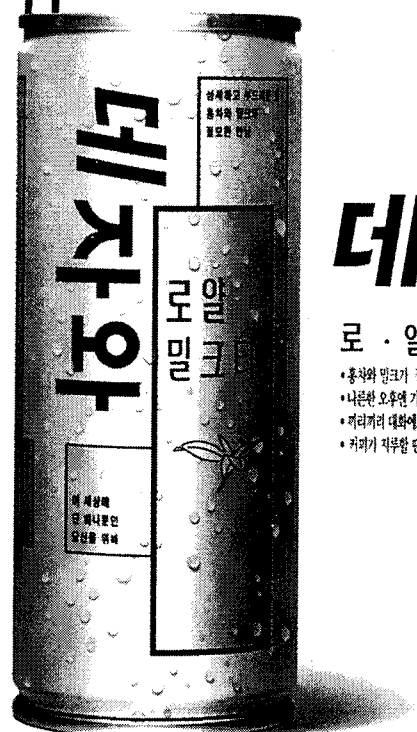
학교벤처, 데자와 로얄밀크티 한 캔을 음미하며 사색중~

박세리는 LPGA투어에서 우승, 19만5천달러의 상금을 -

박찬호는 美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100만 달러 연봉을 -

우리과의 김공부는 이번 학기에도 전액 장학금을 -

난, 난 데자와 로얄밀크티로 100만원 탈꺼다!



부드러운 영국풍 - 데자와

로 · 알 · 밀 · 크 · 티

• 총액 100% 원료에만, 그래서 부드럽고 풍만한 느낌
• 나쁜 맛, 오히려 기분까지 바뀌고, 온전한 사색의 여백이 생길 수 있다.
• 저가대 대체품도 많지만, 데자와의 새로운 음료문화 대역
• 저가대 제품과 비교해보세요!

“캠퍼스의 오후 - 그 오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음모내용 : 밀크티만큼 부드러운 캠퍼스 오후의 추억, 따뜻한 에피소드 ◆ 음모요령 : 원고지 10매, A4용지 3매 내외의 분량으로 형식은 자유(간단한 자기소개 첨부바람)
◆ 음모기간 : 98년 6월 10일~ 7월 31일 ◆ 상금 : 우수작 10명에게 장학금 100만원 ◆ 발표 : 개별통보 및 9월중 학보에 게재될 데자와 광고에 발표
◆ 보내실곳 :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450-1, 동아오츠카(주) 데자와행사담당자 앞 Tel.(0343)70-2231 ※ 수상자 10명은 98년 2학기 데자와 모티드 요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